

목포역 관광안내소 새 단장 “목포여행,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목포시가 최상의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목포역 관광안내소를 새롭게 단장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목포역 외부 광장으로 이전 영어·중국어 통역안내원 등 3명이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하고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관광객 2,000만명 목표로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목포시는 그동안 관광객 맞이 를 위한 다양한 수용태세를 정비하면서 오기 좋고, 놀기 좋고, 쉬기 좋은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목포관광안내소는 서남권의 대표 관문인 목포역사 내에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목포의 여행지 안내는 물론 다양한 먹거리, 잘거리, 놀거리 등을 안내하며 여행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시는 이런 목포역 관광안내소를 목포역 외

부 광장으로 이전해 운영한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역관광안내소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목포역 외부에 관광안내센터를 새롭게 설치했다.
그동안 협소하고 불편했던 사무실 환경이 개선되고, 관광객이 보다 쉽게 안내소를 찾을 수 있게 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영어, 중국어 통역안내원을 비롯한 3명의 안내원이 국내·외 관광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평화광장 종합관광안내소를

비롯한 5개소의 다중집합장소에 관광안내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여름 휴가 성수기를 대비해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로 목포의 우수관광자원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관광서비스 마인드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행업협회는 1,300여개의 국내·외 여행업체로 구성된 단체로 시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관광객유치를 위해 협업하고 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신안군 농수특산물 온라인쇼핑몰 ‘신안1004몰’ 2주년 맞이 축하이벤트

전 품목 20% 할인·무료배송 이벤트

신안군이 오는 7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 14일간 ‘신안1004몰 2주년 맞이 축하이벤트’를 진행한다.
‘신안1004몰(www.shinan1004mall.kr)’은 비대면 온라인 소비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안군에서 개설한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로, 왕새우, 전일염, 김, 홍어, 낙지, 새우젓, 유기농쌀, 마늘, 양파, 설탕, 대파 등 갖벌을 품은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350여 개의 품목을 판매 중이며, 현재까지 총 15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신안1004몰’은 계절별로 개최되는 섬꽃축제, 섬수산물축제와 함께 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와 신안군 대표 관광지를 연계 홍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각종 기획전, 대도시 직거

래장터, 라이브커머스를 통하여 2만여 명의 회원 확보하였다.
또한, 입점된 농어가들 순회 방문하여 상품 접수·배송·정산과 민원응대 등의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함으로써 원활하게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점업체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반기에는 타 쇼핑몰과의 협업기획전, 모바일 마케팅 등을 추진함으로써 ‘신안1004몰’을 고객과 농가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여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안1004몰’ 2주년 맞이 축하이벤트는 20% 할인 기획전, 3만 원 이상 구매고객 경품(모바일 커피쿠폰) 증정, 이벤트 내용 SNS 공유시 적립금(2,000원)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안=이덕주기자

영암군, 2차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 수료식

달마지복지센터서 14명 수료...올 하반기 심화과정 진행, 마을활동가 위촉



영암군이 지난 22일 영암읍 달마지복지센터에서 ‘2023 마을활동가 양성 기본과정 2차 교육’ 수료식을 열었다. 14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이번 수료식은 지

난 3월 1차 23명 수료에 이은 두 번째 행사.
이달 8-22일 총 5회 진행된 교육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이해 △마을활동가의 역할 △공모사업 컨설팅 방법 △마리캔버스’ 실습 등이 내용이었다.
특히, 마을 홍보기법을 실습하는 마리캔버스 과정은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차 교육을 수료한 임희성 씨는 “마을공동체 활동이라는 공통 관심을 가진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교육을 받았다.”며 “마을에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배우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마을활동가의 지속 발굴과 역량 강화로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영암군은 올 하반기에 마을활동가 심화과정 교육을 추진하고, 마을활동가를 선발해 위촉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기자

함평군, 7월 3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군청 민원봉사과·9개 읍면으로 확대...무인민원발급기·정부24 이용

함평군이 7월 3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함평군은 “군청 민원봉사과를 포함한 9개 읍면 민원 업무 처리가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단된다”고 28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민원 업무 공무원의 휴게시간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함평읍, 해보면 등 4개소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또,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SNS,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며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보완하는 등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위해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함평=김광춘기자

무안군, 공무원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회

무안군은 무안군 공무원 직원들의 직무 관련 기본 소양 강화와 청렴·친절 등 교육을 통해 직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과 연수회를 실시했다.
지난 26일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실시한 ‘2023년 6월 공무원 직무교육’은 공무원과 청원경찰 직원 50여 명이 참여하여 응급 민원 대응에 필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주제로 추진했다.
또한 지난 15-16일 신안군 일원에서 추진한 ‘2023년 무안군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연수회’



에서는 30여 명의 공무원 직원들에게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 스트레스에서 탈피하여 군민을 위한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했다.
이번 워크숍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청렴·친절교육, 힐링 테라피 교육을 주 내용으로 공무원 직원들에게 기본이 되는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그동안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무안군은 9월에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12월 청렴·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참석한 공무원 직원은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직원들을 위해 연수회와 직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